



히라카타하시 다리(도카이도 분켄노베즈 그림지도) 1806 년
지금은 암거가 되었지만, 일찍이 이곳에는
안고가와강(나카가와강)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에도시대의
히라카타슈쿠에는 남북 2 개의 「히라카타노바시 다리」가
있었는데 메이지시대 이후, 북쪽의 다리는 가사사기하시, 남쪽의
다리는 히라카타하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
「枚方橋(히라카타하시)」라고 새겨진 난간의 일부가 남아
있습니다.

제공:도쿄 국립박물관